

삼성, 키움 잡고 3위 맹추격...디아즈 외인 한 시즌 최다 홈런·150타점

등록 2025.09.25 22:07:00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8회말 2사 주자 1,3루 상황에서 삼성 다야즈가 스리런 홈런을 친 뒤 더그아웃에 들어서며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2025.09.25. lmy@newsis.com

[서울=뉴스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3위 SSG 랜더스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삼성은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쏘뱅크 KBO리그 키움과의 경기에서 12-3으로 완승을 거뒀다.

3연승 신바람을 낸 4위 삼성(72승 2무 66패)은 3위 SSG(70승 4무 63패)와 승차를 0.5경기까지 좁혔다.

3연패를 당한 최하위 키움은 시즌 전적 47승 4무 91패를 기록했다.

삼성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는 KBO리그 홈런과 타점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홈런 1개와 타점 4개를 추가해 시즌 49홈런과 150타점을 작성하며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중전 박병호 146타점)과 외국인 선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중전 야마이코 나바로 48홈런)을 동시에 갈아치웠다.

삼성의 간판타자 구자욱도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승리 투수는 세 번째 투수로 나서 1이닝을 깔끔히 막아낸 배찬승(2승 3패 17홀드)이 챙겼다.

키움 선발 C.C 메르세데스는 5이닝 동안 안타 11개를 얻어맞고 7점을 허용하면서 시즌 3패째(3승)를 기록했다.

4회까지 키움과 2-2로 치열하게 맞붙었던 삼성은 5회말 빅이닝을 완성하며 멀리 달아났다.

1사 이후 이재현과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가 연이어 2루타를 터트리면서 3점을 뽑아냈고, 이어 타석에 선 김영웅이 우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8-3으로 리드한 삼성은 8회말 승부의 추를 완전히 기울였다.

상대 실책과 심재훈의 안타, 김성윤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의 1루수 땅볼에 3루 주자 양도근이 홈을 통과했다.

계속된 2사 1, 3루 찬스에서는 디아즈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썩기 스리런 아치를 그리며 대승을 자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